

취업모와 비취업모 유아의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역할, 유아 기질, 환경적 지지의 효과*

이미리¹⁾ 신유림²⁾

요약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와 비취업모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타고난 기질, 배우자의 지지 및 사회적 지지의 유아발달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은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 표본 중 초혼이며 배우자가 있는 취업모 583명과 비취업모 1179명, 그리고 그들의 유아기 자녀 1762명이다. 유아의 평균 연령은 25개월로 감각운동기를 지나서 전조작기가 시작되는 시점으로서 인지, 언어 및 사회성발달에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월평균 가구소득과 부모의 학력 변인을 통제한 후 두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취업모 유아의 의사소통 발달 수준이 높고 배우자의 지지 수준이 높았으며 양육스트레스는 낮았다. 취업모와 비취업모 유아의 의사소통 발달과 개인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기질이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이 유아의 타고난 기질이나 환경적 지지가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지 분석한 결과, 취업모 유아의 경우에만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취업모 유아의 기질, 배우자의 지지,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을 매개로 의사소통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결과는 감각운동기에서 전조작기로 넘어가는 유아의 발달에 대해 어머니 취업의 효과를 고려하여 논의되었다

주제어: 취업모, 비취업모, 발달, 양육, 기질

* 이 논문은 2011년도 한국체육대학교 특성화역량개발과제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이 논문은 2012년 제3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음.

1)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교수

2)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교수

I. 서론

취업모가 수행하는 다중역할 중에서 취업모 자신이 가장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이 어머니로서의 역할이다(이수미·이숙현, 2010). 취업모는 어머니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그리고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을 대표적으로 수행하는데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 세가지 역할 중에서 취업모의 심리적 긴장이나 부적응과 관련된 주된 역할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이며(이수미·이숙현, 2010; 조경옥, 2004; Epstein, 1971) 이와 동시에 역할 수행에서 얻는 보상을 가장 많이 받는 역할도 어머니로서의 역할이다(이수미·이숙현, 2010). 특히 집중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 역할 수행은 자녀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Bornstein, 2002). 그러므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은 어머니와의 애착이나 신뢰감 형성이 중요한 발달 초기에 자녀와 분리 경험을 자주하게 되고 자녀와 상호작용의 기회를 적게 갖게 함으로써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관련 변인이나 자녀들의 발달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어머니의 취업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많은데 연구결과들 간 일관성이 적다.

어머니 역할 변인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주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을 다루고 있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 또한 자녀의 행동특성상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Abidin, 1992; 김기원·도현심·김상원·이선희 2010 재인용).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취업모는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데서 오는 역할갈등과 과부하로 인해 양육스트레스가 비취업모에 비해 높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가하면(백영숙, 2007), 비취업모는 취업모에 비해 자녀를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오히려 취업모보다 더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손수민, 2012; 채선미·강희선·이한주·신현숙, 1999). 또한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양육스트레스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는 결과들도 있다(김기원·도현심·김상원·이선희, 2010; 방경숙, 2004).

양육행동은 아동에 대한 부모의 행동방식이나 보편적인 태도로 온정이나 애정, 통제, 방임 등의 차원에서 평가된다(김정희·문혁준, 2006).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행동을 비교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중역할의 수행에서 오는 피로와 부담감으로 인해 취업모의 양육방법이 비취업모보다 더 지배적이고 거부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는가 하면(한중혜·홍계옥, 2000),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태도가 비취업모의

양육태도보다 더 긍정적이라고 보고된 결과도 있다(방경숙, 2004). 또한 2세에서 7세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자녀를 더 통제하고 동시에 더 관대하게 대한다고 하였다(정태연 노현정, 2005). 양육행동의 전반적인 특성에 있어서 취업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는 결과들도 있다(김정희·문혁준, 2006).

아동의 발달이나 적응에 있어서 취업모와 비취업모 가정을 비교한 연구결과들도 일관성이 부족하다. 만 5세 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취업모의 아동이 비취업모 아동에 비해서 또래유능감 수준이 더 높았다(문혁준, 2009). 그러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취업모 가정의 아동들은 정서적 안녕감 수준이 척도의 평균에 못미친다고 보고하였다(도미향, 2006). 또한 유아의 기질에 있어서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비교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방경숙, 2004).

이와 같이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관련 행동을 비교한 선행연구 결과들과 아동발달 수준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들 간에 일관성이 부족한 이유로는 우선, 각 연구에서 선정된 변인들의 구성개념의 차이, 측정도구의 차이, 연구들 간 취업모와 비취업모 표본의 차이를 들 수 있겠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어머니로서의 역할 수행이나 아동발달에 대한 취업 여부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다른 주요 변인들의 효과를 통제하거나 독립적으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취업모라도 취업모의 근무시간에 따라서 양육행동이 달랐는데 주당 35시간 이하로 일하는 어머니들이 그 이상 일하는 어머니들 보다 영유아기 자녀들에게 인지적으로 자극적인 양육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이현정, 2009). 또한 취업모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서 영유아기 자녀의 발달 수준이 달랐는데 직업에 만족하는 어머니들의 자녀가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의 자녀보다 운동, 사회, 인지 발달 수준이 더 높았다(이현정, 2009). 이는 어머니 역할 수행의 수준이나 아동 발달 수준의 차이가 단순히 취업여부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관련 행동과 자녀의 발달을 비교함으로써 어머니 취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변인에 영향을 주는 다른 주요 변인들의 효과를 고려하거나 통제해서 비교해야 하며 집단 비교의 결과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는 집단 내에서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이해해야 한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어머니 취업의 효과가 민감하게 반영되는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주요 변인들로는 앞에서 말한 양육스트레스나 양육행동, 아동의 발달 및 적응 수준

이다. 또한 이러한 변인들과 의미있게 관련된 변인들로는 아동의 기질과 배우자의 지지 혹은 사회적 지지 변인들을 들 수 있다. 아동의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나 양육스트레스 뿐 아니라 아동발달 수준과 의미있는 관계를 갖는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녀의 기질이 까다로울수록 또한 자녀의 기질과 어머니의 기질간 부조화가 클수록 어머니의 부모역할갈등과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한다(임연신 현온강, 2002; 한세영 박성연, 1997).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의 발달에 대한 중단 연구를 보면, 첫 2년 동안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의 정도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 부모의 양육 효능감은 감소하였으며(Bridgett et al., 2009), 9개월에서 27개월 사이 부정적 정서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부모의 강압적인 양육행동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Lipscomb et al., 2011).

기질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4세에서 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 기질의 적응성, 활동성, 정서성 순으로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유의하게 설명한다고 보고하였다(천희영, 1996). 또한 3-7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기질적으로 접근성, 적응성, 기분, 강도 등의 범주에서 분류된 양육완만형과 곤란형 아동 중 곤란형 아동이 운동발달속도, 신체건강상태, 그리고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더욱 부정적이었다(홍성도, 1997). 유아가 지나치게 활동적이거나 융통성이 없고 주의집중을 못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갈등상황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임희수·박성연, 2001). 또한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융통성있는 기질을 갖고 있는 아동이 문제해결력 수준이 높았다(김현옥 우남희, 2004).

배우자의 지지 및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나 양육스트레스 뿐 아니라 아동발달 수준과 의미있는 관계를 갖는다. 남편의 지지는 아내의 부모역할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배우자의 자녀양육 참여도가 높을 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았는데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경우 모두 그러하였다(김정 이지현, 2005; 전춘애 박성연, 1996; 조경옥, 2004). 배우자의 지지 뿐 아니라 다른 사회적 지지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데 기여했다(문혁준, 2004). 사회적 지지와 아동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나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아동이 심리적, 사회적 적응 수준이 높다(김경은, 2012; 이현송, 200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나 양육행동은 아동발달 뿐 아니라 아동의 타고난 기질, 배우자의 지지 및 사회적 지지와 의미있게 관련되어 있어서 아동의 기질 및 환경적 지지가 아동발달과 갖는 관계를 매개할 가능성이 크다. 어머니

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기질과 발달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에 의하면 불안장애를 가진 유아의 기질과 정서조절 능력의 관계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매개하였는데 유아의 부정적인 기질은 어머니의 통제적이며 침해적인 양육행동이나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양육행동을 통해서 유아의 역기능적인 정서조절 반응과 관계가 있었다(박진아 정문자, 2007).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기질과 행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매개역할을 한다는 다른 선행연구결과들은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과 문제행동 발달의 관계를 살펴본 종단적 연구들에서 살펴볼 수 있다. 부정적 정서성의 발달에 대한 종단 연구를 보면, 첫 2년 동안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의 정도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 부모의 양육 효능감은 감소하였으며(Bridgett et al., 2009), 9개월에서 27개월 사이 부정적 정서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부모의 강압적인 양육행동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Lipscomb et al., 2011). 특히 부정적 정서성은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부정적인 양육행동과 함께 이후 아동의 문제행동을 발달시킬 수 있다(Engle & McElwain, 2010).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와 비취업모 유아의 발달 수준,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유아의 기질, 그리고 배우자의 지지 및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집단간 비교 분석과 집단내 분석을 통해서 유아기 발달에 있어서 어머니 취업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연령이 25개월임을 고려하여 이 시기에 현저한 발달적 변화가 일어나는 의사소통과 사회성 발달에 초점을 두었다. 유아기는 부모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또래들과의 교류를 경험하게 되면서 사회적 관계가 확대되며, 이 시기에 급속하게 발달되는 언어능력은 유아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 하에 제기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인구학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유아의 기질, 배우자의 지지, 사회적 지지, 유아의 의사소통, 개인사회성 발달은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유아의 기질, 배우자의 지지, 사회적 지지 중 유아의 의사소통, 개인사회성 발달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은 유아의 기질, 배우자의 지지, 사회적 지지가 유아의 의사소통, 개인사회성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제공하는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 표본 중 초혼이며 배우자가 있는 1762명의 어머니들과 그들의 유아기 자녀들이다(김은설 외, 2012). 이들 중 취업모가 583명(32.4%), 비취업모가 1179명(67.7%)이다. 전체 유아 중 남아는 899명(51.0%), 여아는 863명(49.0%)이었으며,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2.78세($SD=3.66$)이고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35.26세($SD=3.98$)이다. 유아의 평균 연령은 25.75개월($SD=1.36$)이고 범위는 23-31개월이다. 취업모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4,470,000원, 비취업모 가정은 3,140,000원이다. 취업모의 학력 분포는 고졸 이하 23.0%, 전문대졸 24.7%, 대졸 이상 52.3%이고 비취업모의 경우 고졸 이하 33.1%, 전문대졸 24.8%, 대졸 이상은 42.1%이다. 취업모 배우자의 학력 분포는 고졸 이하 20.3%, 전문대졸 18.8%, 대졸 이상 60.9%이고 비취업모 배우자의 경우는 고졸 이하 25.7% 전문대졸 18.1%, 대졸 이상 53.5%이다.

2. 측정도구

가. 양육스트레스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 α 값은 .744이었다.

나. 양육행동

Bornstein et al.,(1996)의 PSQ(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PSQ는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된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 행동을 의미한다. Cronbach α 값은 .810이었다.

다. 기질

유아의 기질은 Buss와 Plomin(1984)가 개발한 EAS 기질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

다. 이 척도는 부모 보고용으로 부정적 정서성, 활동성 및 사회성의 3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는 정서성과 사회성의 2개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EAS는 Likert식 5점 척도로 문항수는 부정적 정서성 5개, 사회성 10개이다. 부정적 정서성의 Cronbach α 값은 .662, 사회성은 .644이었다.

라. 배우자의 지지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강희경(1998)과 홍성례(1995)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기초로 제작된 척도로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어머니 보고용이며 총 4문항으로 Likert식 5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참여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 α 값은 .829이었다.

마.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이재림과 옥선화(2001)의 사회적 지원 척도와 조병은, 서동인, 신화용 및 정현숙(1998)의 사회적 지원 척도를 기초로 제작된 척도로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어머니 보고용이며 12개 문항의 Likert식 5점 척도이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 α 값은 .894이었다.

바. 발달

유아의 발달은 허계형·Squires·이소영·이준식(2006)의 K-ASQ에서 의사소통과 개인사회성 발달의 2개 하위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K-ASQ는 어머니가 보고하며 각 영역별 문항 수는 6개이고 각 문항에 ‘예’(10점), ‘가끔’(5점), ‘아니오’(0점)로 점수화한다. 의사소통 발달 하위척도의 Cronbach α 값은 .692, 개인사회성 발달 하위척도는 .644이었다.

3. 자료분석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문제 별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 양육관련변인, 유아의 기질, 배우자의 지지, 사회적 지지, 유아의 발달에서의 차이는 t검정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관련변인, 유아의 기질, 배우자의 지지, 사회적 지지가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셋째, 어머니 양육관련변인의 매개효과는 AMOS 16.0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III. 연구결과

1. 취업모와 비취업모 집단간 인구학적 특성, 양육관련 변인 및 유아의 발달 수준 차이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월평균 가구 소득을 비교한 결과, 취업모 가정의 소득이 더 많았다($t=9.82, p<.001$). 최종학력 분포는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인다($\chi^2=20.66, p<.001$). 배우자의 학력분포도 취업모의 배우자가 비취업모의 배우자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인다($\chi^2=12.88, p<.01$).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유아의 기질, 배우자의 지지, 사회적 지지 및 유아 발달 수준의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 의하면,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서 양육스트레스가 적고,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 수준이 낮으며 자녀 양육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가 더 많고 유아의 의사소통 발달 수준이 더 높았다.

〈표 1〉 취업모 및 비취업모의 유아 발달 수준과 양육관련 변인의 차이

측정변인		취업모(<i>n</i> =583)		비취업모(<i>n</i> =1179)		<i>t</i>
		<i>M</i>	<i>SD</i>	<i>M</i>	<i>SD</i>	
어머니 역할	1. 양육스트레스	2.71	.60	2.83	.63	- 3.80***
	2. 양육행동	3.74	.51	3.75	.51	- 4.83
유아 기질	3. 부정적 정서성 기질	2.80	.60	2.86	.62	- 1.97*
	4. 사회성 기질	3.62	.52	3.57	.56	1.93
환경적 지지	5. 배우자의 지지	3.81	.84	3.67	.83	3.04**
	6. 사회적 지지	3.88	.64	3.85	.62	1.13
유아 발달	7. 의사소통 발달	8.78	2.37	8.53	2.51	2.05*
	8. 개인사회성 발달	7.89	3.70	8.09	3.56	- 1.05

*** $p < .001$, ** $p < .01$, * $p < .05$

이러한 두 집단 간 차이가 어머니 취업의 효과인지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인지 알아보기 위해 t 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부정적 정

서성 기질, 배우자의 지지, 유아의 의사소통 발달 수준에 대해 월평균 가구 소득과 부모 학력을 공변량으로 하여 ANCOVA를 실행한 결과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 수준의 집단간 차이는 없었으나($F=2.193$, $p=.139$)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F=12.257$, $p=.000$), 배우자의 지지($F=7.115$, $p=.008$), 그리고 유아의 의사소통 발달 수준은($F=6.455$, $p=.011$) 여전히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2. 취업모와 비취업모 유아의 발달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

유아의 발달수준에 대한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유아의 기질, 배우자 및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취업모와 비취업모 집단 별로 위계적중다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행하였다. 인구학적 변인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의 1단계에서는 인구학적 변인들 중에서 두 집단간 차이를 보인 월평균 가구 소득과 부모의 최종 학력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유아의 기질, 배우자의 지지와 사회적 지지를 투입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의 기본가정 충족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Durbin-Watson 값과 상충변량(VIF)값을 산출하였다. 취업모 유아의 의사소통발달 수준에 대한 회귀분석에서의 Durbin-Watson 값은 1.994, 개인사회성발달 수준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는 2.033으로 2에 근접하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이 충족되며 이들 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인들의 VIF값들은 1.093~1.757의 값들로 1에 근접하여 다중공선성의 위험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취업모 집단 유아들의 발달 수준에 대한 위계적중다회귀분석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 의하면 취업모 유아의 경우, 월평균 가구 소득과 부모 학력의 영향을 통제한 후 유아의 의사소통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었으며, 개인사회성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유아의 사회성 기질이었다. 비취업모 집단 유아를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에서도 중다회귀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이 충족되었다. 비취업모 유아의 의사소통발달 수준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산출된 Durbin-Watson 값은 1.988, 개인사회성발달 수준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는 1.912로 2에 근접하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이 충족되며 이들 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인들의 VIF 값들은 1.002~1.715의 값들로 1에 근접하여 다중공선성의 위험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비취업모 유아들의 발달 수준에 대한 위계적중다회귀분석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2〉 취업모 유아의 의사소통발달과 개인사회성발달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종속변인	step	독립변인	β	ΔR^2	R^2
의사소통 발달	step1	월평균 가구 소득	.025	.003	.003
		어머니 학력	.062		
		아버지 학력	-.071		
	step2	양육스트레스	-.036	.031**	.034**
		양육행동	.169**		
		부정적 정서성 기질	.030		
		사회성 기질	.045		
		배우자의 지지	.041		
		사회적 지지	.018		
개인사회성 발달	step1	월평균 가구 소득	-.025	.011	.011
		어머니 학력	.003		
		아버지 학력	.102		
	step2	양육스트레스	-.021	.024*	.035*
		양육행동	-.083		
		부정적 정서성 기질	.037		
		사회성 기질	.111*		
		배우자의 지지	.022		
		사회적 지지	.093		

주: 위계적회귀분석의 최종 step에서 산출된 β 를 제시하였음.

** $p < .01$, * $p < .05$

〈표 3〉에 의하면, 월평균 가구 소득과 부모 학력의 영향을 통제한 후 비취업모 유아의 의사소통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성 기질이였다. 개인사회성 발달에 대해서는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이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의 표준화회귀계수 값이 유의하였다.

〈표 3〉 비취업모 유아의 의사소통발달과 개인사회성발달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종속변인	step	독립변인	β	ΔR^2	R^2
의사소통 발달	step1	월평균 가구 소득	.020	.001	.001
		어머니 학력	.023		
		아버지 학력	-.007		
	step2	양육스트레스	-.046	.028***	.029***
		양육행동	.094**		
		부정적 정서성 기질	.022		
		사회성 기질	.093**		
		배우자의 지지	.033		
		사회적지지	-.014		

(표 3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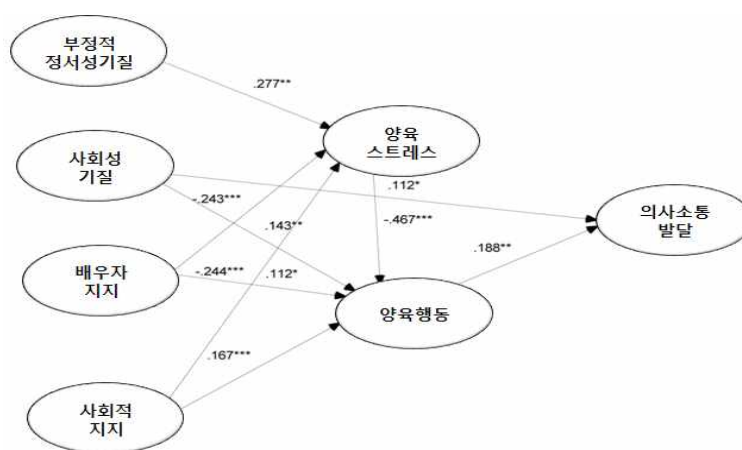
종속변인	step	독립변인	β	ΔR^2	R^2
개인사회성 발달	step1	월평균 가구 소득	.000	.001	.001
		어머니 학력	.025		
		아버지 학력	-.044		
	step2	양육스트레스	-.021	.012	.013
		양육행동	-.020		
		부정정서성기질	-.073*		
		사회성 기질	.033		
		배우자의 지지	.035		
		사회적지지	-.028		

주: 위계적회귀분석의 최종 step에서 산출된 β 를 제시하였음.

*** $p < .001$, ** $p < .01$, * $p < .05$

3. 취업모와 비취업모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취업모 및 비취업모 유아의 기질과 환경적 지지의 발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비취업모 유아의 경우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취업모 유아의 의사소통 발달에 대한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225.924$ ($df=131$, $p < .001$), TLI=.971, CFI=.978, RMSEA=.035로 산출되어 모형이 적합하였다. 매개모형 분석결과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1] 취업모 유아의 의사소통 발달에 대한 어머니 역할의 매개효과 모형

[그림 1]에 의하면 취업모 유아의 기질, 배우자의 지지, 사회적 지지가 유아의 의사소통 발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이 매개역할을 하였다. 유의한 경로를 보면,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이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사소통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유아의 사회적 기질이 취업모의 양육행동을 통하여 의사소통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배우자의 지지와 사회적 지지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나 양육행동을 매개로 의사소통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반면에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 배우자의 지지, 사회적 지지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지만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유아의 의사소통발달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와 비취업모 유아들의 발달 수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관련변인과 유아의 타고난 기질, 그리고 환경적 지지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취업모와 비취업모 집단간 비교를 통해서 유아의 발달 수준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배우자의 지지와 사회적 지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각 집단내에서 이들 변인중 유아의 발달을 설명하는 변인들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결과들은 유아의 발달에 대한 어머니 취업의 효과의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1.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집단간 비교

취업모와 비취업모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있었고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 수준이 낮다고 지각하였다. 또한 배우자로 부터 자녀양육에 대한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있었고 자녀의 의사소통 발달 수준이 더 높았다.

그러나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 수준에 있어서의 취업모와 비취업모 집단간 차이는 월평균 가구 소득과 부모의 학력을 통제한 후에는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차이는 어머니의 취업유무 보다는 두 집단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세 변인들에 있어서의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월평균 가구 소득과 부모의 학력을 통제해도 유의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머니 취업의 효과에 대한 두가지 상반된 견해 중 하나를 지지한다.

자녀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취업 효과에 대해서는 두가지 상반된 관점이 있다. 하나는 부정적인 관점인데 애착이론에 근거하여 연구자들은 영유아기 자녀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보고한다. 비취업모에 비해 취업모는 일상생활에서 자녀와의 오랜 시간의 격리로 인해 유아기 자녀와의 상호작용 시 유아의 요구에 대해 반응적인 태도를 보이기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유아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발달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Belsky, 1988). 또한 역할긴장시각(role strain perspective)에서 볼 때, 취업모는 자녀양육과 직장 일 사이에서 역할 갈등을 경험하게 되어 가정에서 자녀와 애정적 상호작용을 하기 어렵다(Crouter, Bumpus, Maquire, & Machale, 1999).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관점인데 역할강화시각(role enhancement perspectives)에서 보면 취업모는 비취업모에 비해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나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다른 활동을 하는 시간을 줄이고 자녀와 보내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질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본다(Marks, Huston, Johnson, & MacDermid, 2001). 또한 취업모가 자신의 일을 도전적으로 지각하는 경우 직장생활이 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긍정적인 확산(positive spillover) 효과가 있다고 본다(Barnett, Marshall, & Saver, 1992). 본 연구 결과는 유아기 자녀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취업 효과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견해를 지지한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유아 발달에 있어서는 의사소통 발달수준에서만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취업모의 유아가 비취업모의 유아들에 비해서 의사소통 발달수준이 더 높았다. 한국아동패널 1차와 2차년도 data에서 제시된 유아의 의사소통 발달수준 점수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므로(이정림, 2010, 2011) 급격한 언어발달이 일어나는 시기인 평균 연령 25개월부터 취업모와 비취업모 아동의 언어발달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아의 개인사회성 발달에서는 취업모와 비취업모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방법론적, 이론적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방법론적 관점에서는 측정도구의 성격과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어머니 취업과 아동의 사회성 발달간의 유의한 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치우기 과제(clean-up task) 상황에서 아동의 순응과 불순응 행동을 관찰하고, 어머니가 보고하는 사회적 유능감 척도 및 문제행동 척도를 적용하여 사회성 발달을 다면적인 측면에서 측정하였다(Huston & Aronson, 2005).

그런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아동패널 데이터에서는 유아의 개인사회성 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K-ASQ를 사용하였고 이 척도는 해당 연령의 전체 유아들 중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발견하는 발달선별검사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총점으로 계산된 개인사회성 발달점수가 아동들 사이의 개인 차이를 민감하게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론적 관점에서는 발달의 시기와 관련해서 설명될 수 있다. 취업모와 비취업모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비교한 Nomaguchi(2006)의 연구에서는 24개월에는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4세에서는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의 평균연령이 25개월임을 고려해볼 때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환경적 영향력은 현 시점에서 보다는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취업모와 비취업모 집단 내 분석

취업모와 비취업모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중다회귀분석결과를 보면, 취업모 유아의 의사소통발달을 제외하고, 취업모 유아의 개인사회성 발달과 비취업모 유아의 의사소통발달 및 개인사회성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은 유아의 기질이었다. 발달초기 부정적 정서성은 기질의 핵심요소이며(Rothbart & Bates, 1998),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기질적인 특성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아의 기질 특성 중 부정적 정서성 정도가 낮고 사회성 정도가 높을 때 유아는 어머니 및 주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즐기며 어머니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게 되므로 이러한 기질 특성은 유아의 언어 및 사회성 발달에 필수적인 환경 조건이 될 수 있다(Usai, Garelllo, & Vilerbori, 2009).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변인들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이 유아의 타고난 기질과 환경적 지지가 발달과 갖는 관계에 있어서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지 분석해본 결과 취업모 유아의 의사소통 발달에 있어서 유의한 매개효과가 발견되었다. 취업모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 배우자의 양육적 지원, 사회적 지지는 유아의 의사소통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통해서 유아의 의사소통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24개월은 언어능력에서 개인 및 계층 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이며, 유치원 입학 전까지 어휘력에서 이러한 개인차가 관찰된다(Hart & Risley, 1995). 이 시기의 언어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주변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Koenig, Clement, & Harris, 2004). 또한 24개월에 측정된 언어 능력은 이후 자기 조절의 발달궤적을 예언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Ayoub, Vollotton & Mastereorge,

2011). 이 시기에 언어발달이 이러한 다른 영역의 발달에도 미치는 주요 영향력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 유아의 발달적 중재를 위해 가치있는 정보라고 생각된다. 또한 취업모의 유아가 비취업모의 유아에 비해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을 보인점에 대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추후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은 유전적인 특성이나 발달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특히 부모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어린 시기에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부분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Rothbart & Bates, 1998). 매개효과 분석에 대한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은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이 의사소통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들은 지지한다(Engle & McElwain, 2010; Lipscomb et al., 2011). 따라서 부정적 정서성의 수준이 높은 아동들의 경우 더욱 세심하고 민감한 양육이 요구되며 이러한 자녀를 둔 어머니를 위한 효율적인 양육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취업모 및 비취업 아동 모두 개인사회성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나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Lugo-Gil과 Tamis-LeMonda(2008)는 종단 연구에서 양육의 질과 가족 자원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적해본 결과, 특정 시점의 변인들이 현재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였으나 이후 발달과정에서 이전 시기의 양육 질과 가족 자원의 영향력이 36개월에 나타나는 발달의 누적 모델(cumulative model)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사회성 발달에서 볼 때, 본 연구대상 평균연령인 25개월은 발달적으로 아직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시기 아니므로,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즐기고 사회적 놀이의 참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6개월 이후에 사회성 발달과 관련된 변인들의 누적된 영향력이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모형 검증에 위해 사용된 내생변인인 유아의 의사소통 발달과 개인사회성 발달 구조변수의 집중타당성이 만족스럽지 못했다. 의사소통 발달과 개인사회성 발달을 측정하는 각 6개씩의 문항을 측정변수로 하여 확인적요인분석을 실행한 결과 요인부하량이 .5이하인 문항을 제외하고 의사소통 발달은 3개 문항, 개인사회성 발달은 2개 문항을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유아의 발달 측정 도구인 K-ASQ는 ‘예’(10점), ‘가끔’(5점), ‘아니오’(0점)’으로 점수화하게 되어 있어서 척도의 성격상 점수 분포가 정상분포를 이루기 어렵다. 이런 점이 집중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양육에 관련된 변인이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일방향적 모

형을 설정하였다. Lugo-Gil과 Tamis-LeMonda(2008)의 연구결과를 보면 Bayley 검사로 측정된 운동발달지수가 어머니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발달적 수준에 반응하여 어머니도 자신의 양육행동을 조절, 변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이 자신의 발달에서 어머니의 일방적인 영향을 받기 보다는 특정한 양육행동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발달과 부모의 양육행동의 상호적인 관계를 입증해보는 추후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 중 유아 기질 척도의 신뢰도가 낮았으며 이는 척도가 비교적 적은 수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이로 인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뢰도가 검증된 기질 척도를 적용한 연구가 추후에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희경(1998).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역할과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경은(2012). 저소득층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및 부모참여와 유아의 인지발달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9, 1, 1-17.
- 김기원·도현심·김상원·이선희(2010). 어머니의 취업여부, 취업관련 특성, 배우자의지지 및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1, 5, 101-113.
- 김기현, 강희경 (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 5, 141-150.
- 김은설·도남희·왕영희·송요현·이예진·정영혜·김영원(2012). 한국아동패널2012, 육아정책연구소.
- 김정·이지현(2005).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6, 5, 245-261.
- 김정희·문혁준(2006).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4, 1, 115-129.
- 김현옥·우남희(2004). 아동의 기질과 대안적 문제 해결사고 전략의 발달과 그 관계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5, 2, 1-18.
- 도미향(2006). 맞벌이 가족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1, 3, 77-92.
- 문혁준(2004).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42, 11, 109-122.
- 문혁준(2009).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어머니의 취업 유무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0, 2, 57-69.

- 박진아·정문자(2007). 불안장애 유아의 기질과 역기능적 정서조절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 2, 273-295.
- 방경숙(2004).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양육태도, 양육부담감 및 학령전기 자녀의 기질과 건강관련 변인 비교. 아동간호학회지, 10, 2, 217-224.
- 백영숙(2007). 어머니의 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죄책감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수민(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비교와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 1, 331-357.
- 이수미·이숙현. (2010). 취업모의 다중역할의 질과 심리적 건강.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 3, 67-90.
- 이재림·옥선화. (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지원과 생활민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 5, 49-63.
- 이정립(2010). 한국아동패널 제 1차 심층조사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립(2011). 한국아동패널 2010 기초분석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 이현송(2008). 빈곤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사회복지학생연구논총. 1, 104-161.
- 이현정(2009). 취업모의 직업 특성이 양육행동과 영유아의 운동, 사회,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0, 3, 1-21.
- 임연신·현운강(2002). 한국과 연변조선족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태도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 11, 23-37.
- 임희수·박성연(2001).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3, 1, 37-54.
- 전춘애·박성연(1996).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7, 3, 95-105.
- 정태연·노현정(2005).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른 양육죄책감과 양육행동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 2, 211-232.
- 조경옥(2004). 취업모의 근무환경, 보육서비스, 남편의 지지도가 양육역할긴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9, 2, 161-178.
- 조병은·서동인·신화용·정현숙(1998). 편모가족의 어머니와 자녀의 긍정적 변화에 all는 자원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 1, 13-21.
- 채선미·강희선·이한주·신현숙(1999). 배우자 지지가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모자보건학회지, 3, 2, 187-195.
- 천희영(1996). 아동의 기질과 맥락 적응의 관계 II: 아동의 기질적합성과 어머니의 기질

- 및 사회적 능력의 관계. 아동연구, 5, 9-25.
- 통계청(2009b). 지역별고용조사. 시도 및 전국.
- 한세영·박성연(1997).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조화/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 아동학회지, 17, 1, 245-258.
- 한중혜·홍계옥(2000). 어머니의 자가지각과 양육행동. 미래유아교육학회지, 7, 1, 85-111.
- 허계형·Squires, J.·이소영·이준식. (2006). K-ASQ(한국형 Ages & Stage Questionnaires). 부모작성형 유아 모니터링 체계. 서울: 서울장애인복지관
- 홍성도(1997). 기질과 가정환경 및 발달사이의 관계에 관한 예비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8, 1, 50-56.
- 홍성례(1995). 30대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Clinical Psychology*, 21, 407-412.
- Ayoub, C., Vollotton, C. D., & Mastergeorge, A. M. (2011). Developmental pathways to integrated social skills: The roles of parenting and early intervention. *Child Development*, 82, 2, 583-600.
- Barnett, R. C., Marshall, N. L., & Saver, A. (1992). Positive-spillover effects from job to home: A closer look. *Women and Health*, 19, 13-41.
- Belsky, J. (1988). The effects of infant day care reconsidered.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235-272.
- Bornstein, M. H. (2002). Parenting infants.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1, 2nd ed., pp. 3-44). Mahwah, NJ: Erlbaum.
-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Pascual, L., Haynes, M. O., Painter, K. M. Alerin, C. Z., & Pecheus, M. G. (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 2, 347-367.
- Bridgett, D. J., Gartstein, M. A., Putnam, S. P., et al., (2009). Maternal and contextual influence and the effect of temperament development during infancy and parenting in toddlerhood.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32, 103-116.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Y: Erlbaum.
- Crouter, A. C., Bumpus, M. F., Maquire, M. C., & McHale, S. M. (1999). Linking parents' work pressure and adolescents' well-being. *Developmental*

- Psychology*, 34, 1453-1461.
- Engle, J., M., & McElwain, N. L. (2010). Parental reactions toddlers' negative emotions and child negative emotionality as correlates of problem behavior at the age three. *Social Development*, 20, 2, 251-271.
- Epstein, C. (1971). Law partner and marital partner: Strains and solutions in the dual career family enterprise. *Human Relations*, 24, 549-564.
- Hart, B. & Risley, T. (1995). *Meaningful differences in the everyday experiences of young American children*. Baltimore: Paul H. Brooks.
- Huston, A. C. & Aronson, S. R. (2005). Mothers' time with infant and time in employment as predictors of mother-child relationships and children's early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6, 2, 467-482.
- Koenig, M. A., Clement, F., & Harris, P. L. (2004). Trust in testimony: Children's use of true and false statements. *Psychological Science*, 15, 694-698.
- Lipscomb, S. T., Leve, L. D., Harold, G. T., Neiderhiser, J. M., Shaw, D. S., & Ge, X. (2011). Trajectories of parenting and child negative emotionality during infancy and toddlerhood: A Longitudinal analysis. *Child Development*, 82, 5, 1161-1675.
- Lugo-Gil, J. & Tamis-LeMonda, C. S. (2008). Family resources and parenting quality: Links to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al across the first 3 years. *Child Development*, 79, 4, 1065-1085.
- Marks, S. R., Huston, T. L., Johnson, E. M. & MacDermid, S. M. (2001). Role balance among white married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 1083-1098.
- Nomaguchi, K. M. (2006). Maternal employment, nonparental care, mother-child interactions, and child outcomes during preschool yea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 1341-1369.
- Rothbart, M. K., & Bates, J. E. (1998). Temperament. In W. Damon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pp. 106-176). New York: Wiley.
- Usai, M. C., Garelo, V., & Vilerbori, P. (2009). Temperamental profiles and linguistic development.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32, 322-330.

·논문접수 3월 22일 / 수정본 접수 6월 14일 / 게재 승인 6월 20일

·교신저자: 신유림,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교수, 이메일 yoolim@catholic.ac.kr

Abstract

Effects of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Role, Child Temperament, and Environmental Support on Early Child Development

Meery Lee Yoolim Shi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style, child temperaments, supports from spouses and society on developments of both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The participants are 583 employed mothers, 1,179 unemployed mothers, and their 1,762 early children. The average age of the children was 25 months old, which is the transitional period from sensorimotor stage to preoperational stag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language developmental levels of the employed mothers' child and spouses' supports were higher and parenting stress was lower than the unemployed mothers' controlling for monthly household income and parents' education levels. Second,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s that affected on employed mothers' and unemployed mothers' child development were child temperaments. Finally, employed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styles mediated the relationships of child temperaments, spouses' supports, and social support with child language development. Findings were discussed regarding the effects of mothers' employment on child development in the transitional period from the sensorimotor stage to preoperational stage.

Key words: employed mothers, unemployed mothers, development, parenting, temperaments